

바다와 함께 움직이는 삶에 대하여

- 해녀 김은아 님 인터뷰

윤박 회원, 선전위원

얼마 전 큰 인기를 끈 드라마에도 나오는 제주도 해녀는 ‘육지’ 사람들에게는 참 생소한 존재다. 강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억척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제주에서 김은아 님을 만나 해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반갑습니다. 먼저 김은아 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해녀로 일한 지 이제 8년 차 되는 월정리 막내 해녀 김은아입니다. 제주도 토박이고, 구좌읍 월정리에서 해녀로 물질하고 농사도 지어요. 구좌 당근이라고 유명한데, 당근이랑 토종 농사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님은 어떤 계기로 해녀로 일하게 되셨나요?

어머니가 해녀 일을 하셔서, 물질이 낯설지는 않았어요. 원래 제주시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가족들이 편찮아지면서 돌볼 사람

이 없어서 고향 월정리로 돌아왔고, 먹고살려고 해녀 일을 시작한 거죠.

제주 농촌에는 ‘보리 방학’이라고 있는데, 보리가 나는 시기에 학생들 방학을 하고 수확을 돕는 거죠. 여기서는 ‘우미 방학’이라고 해서, 봄철 우미(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시기에 이틀, 사흘 방학을 해서 제주시내에 유학 간 학생들도 다 고향에 와서 우미 작업을 해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우미를 채취하고 나르고 말리고 하는 거죠. 그때는 정말 진풍경이었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근데 이제 월정리에서는 우미가 나지 않아요. 한 4~5년 전부터 여러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해녀들의 일터도 점점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요.

물질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대략 말씀해주신다면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 7시부터 물질을 한다고 하면 6시에 불턱(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가기 전 잠시 준비하는 쉼터)에 나와요.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 둘러앉아서 사는 이야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장작불을 피워서 몸도 녹이고요. 불턱에서 삼춘(제주도에서 성별 구분 없이 어르신을 일컫는 호칭)들이 파도와 바다 상태를 계속 살피면서 물질할 수 있을지 그 자리에서 의논해서 판단하는 거죠. 제주도도 엄청 가부장적인데, 물질만큼은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해녀 공동체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 돈을 버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도 있고요.

바다가 괜찮겠다 하면 물질을 시작해요. 물건(해녀가 채취하는 해산물)이 얼마나 있는지, 파도가 거칠지 않는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4~5시간 정도 물질을 해요. 그 다음 정리하는 데 두어 시간 걸리고요. 그러고서 저는 밭으로 가는 거죠. 연세가 있으신 삼춘들은 병원에 가거나 집에서 쉬어야 해요. 물질을 하고 나면 몸이 많이 힘들거든요.

물질 작업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아무 때나 물질하는 게 아니라 물때가 있어요. 보름마다 한 달에 두 주기, 한 주기에 7일인데, 기상상황에 따라 7일 다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입수하기 전에 불턱에 앉아서 고무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차분히 준비해요. 삼춘들은 물에 들 때는 서두르면 안 된다 하세요. 고무옷 입고 연철(잠수하기 위해 허리에 차는 납덩어리), 오리발, 수경, 호맹이(물건을 켤 때 쓰는 뾰족한 갈고리 형태의 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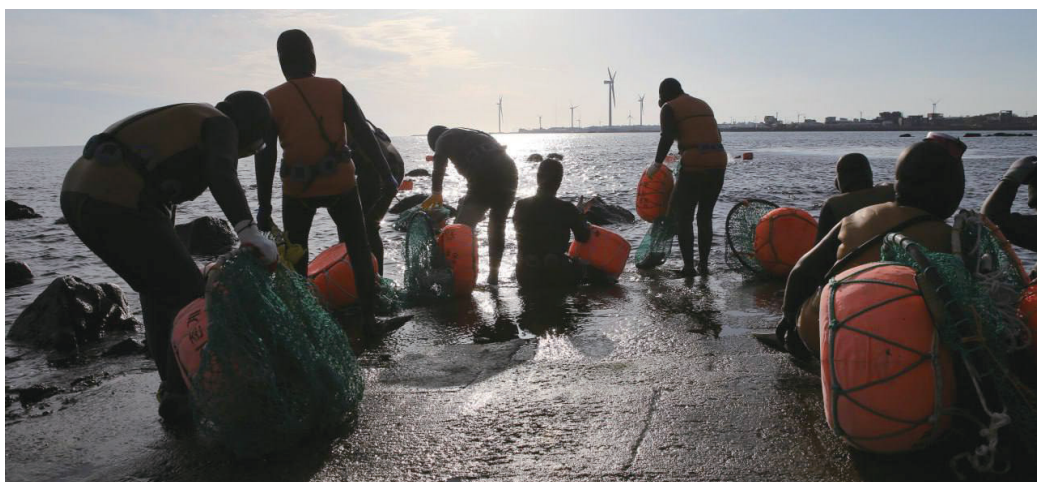
테왁(물에 떠서 몸을 받치고 잡은 해산물을 담는 어구)을 챙겨요.

물질을 할 때면 하루에 수백 번 오르락내리락하며 한 숨에 2분 정도 물질을 해요. 수면 위로 올라와 참았던 숨을 내쉬며 숨비소리를 내고는 기운이 빠지니까 테왁을 끌어안고 잠깐 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물질 잘하는 분들을 상군이라 하고 저는 하군도 못 되는 ‘뚱군’인데, 상군 삼춘들이 두 번 나올 때 저는 서너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숨이 짧으니까 깊은 데 못 가고 얕은 데서 물질하는 거죠.

대개 테왁을 다 채우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욕심내면 안 돼요. 바닷속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들 하세요. 소라 하나 더 캐려다가 큰일 난다고요. 파도가 좀 세져간다면 삼춘들이 하나둘 물으로 나가고, 저도 따라 나가는 거죠. 급할 때는 신호를 보내서 물질을 그만하게 하고요. 바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해녀들은 단독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도 다 같이 결정하고요. 이 또한 서로의 안전을 위한 공동체 문화겠죠.

육지 사람들에게 숨비소리는 그저 신비롭게만 들리지만 거기엔 해녀들의 애환과 고통이 깃들어 있다더군요.

바다 깊이 들어갈수록 수압이 세지않아요. 나오면 압력이 낮아지는데, 그 차이로 인한 숨병(잠수병)이 많이 생겨요. 높은 수압 때문에 질소가 피에 녹아든대요.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질소가 체외로



▲ 물질하기 전에 바다로 들어가려는 해녀들. 사진 : 김은아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데, 이 질소가 신체에 쌓이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두통에 구토, 관절통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요. 저도 가끔 산소가 모자랄 때 온몸이 경직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더 그렇고요. 얼마 전부터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여럿 생겨서 해녀들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산소치료를 받고 온 삼춘들은 한결 좋다고 해요.

숨병 말고도 여러 질병이나 사고를 겪기도 하실 것 같아요. 해녀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노동안전 보건상의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파도가 엄청 셀 때는 말 그대로 파도에 휩쓸려가요. 바위나 배에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성게나 빨소라의 날카로운 데 찔리고 긁히기도 하죠. 압력 차이 때문에 청력도 손상돼 난청도 많아요. 해녀 삼춘들 목소리가 큰 게 다 이유가 있죠. 파도의 저항을 이기며 물질하다 보면 근육통에 온몸이 아파요. 미끄러지면서 낙상이나 타박상을

입기도 하고요. 젊은 삼춘이라고 해도 60대 후반이신데, 그런 분들이 소라 같은 해산물 이 담긴 테왁을 들고 오거든요. 물에 나와서 50킬로그램 넘는 물건을 짊어지고 100미터 이상 걸어와야 해요. 여기까지가 해녀의 일이에요. 남편이나 집안에 도와줄 남자가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월정리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이름난 곳이라 항상 관광객들로 붐비잖아요. 또 김은아 님께는 다른 무엇보다 삶의 터전이고요. 그 바다에 오페수가 방류된다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월정리 가까운 곳에 오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가 물질하는 바다에 온갖 더러운 물을 버리는 거예요. 하수처리장 공사가 시작된 97년에는 월정리가 먹고살기도 힘들었고, 관에서 한다고 하니 믿었던 것도 있고요. 그 뒤로 제주 동부의 인구 증가와 관광객 유입을 이유로 하수 발생량이 늘면서 계속 증설해왔어요. 처음에 공사 막는



▲ 바위에 걸터앉아 물질을 준비하는 김은아 님. 사진 : 김은아

다고 저희가 보초를 쏘거든요. 어느 날 밤에 공사 차량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해녀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마을 동별로 다 연락이 갔나 봐요. 밤 10시에 해녀 삼촌들이 파자마 차림으로 오토바이 타고 총출동했어요. 그때는 정말 몽클했는데….

최근 법원에서 월정리 주민이 아니라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고요. 저울질을 해보니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한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제주도는 관광객을 계속 유치해야 하니까 힘없고 작은 마을은 착취당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 불평등이 제게는 무척 크게 다가와서 싸워왔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죠.

물질을 처음 시작한 날, 하수처리장 바로 근처였거든요. 바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물질해온 몇 년 사이에도 점점 바다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오폐수만이 아니라, 기후위기도 영향을 끼쳤을 거고요. 하지만 월정리에 그 많던 우미는 다

사라졌고요. 삼촌들이 말해요. “나보다 바다가 먼저 죽을 거 같다”고요.

마지막으로 <일타>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시겠어요.

해녀가 강인한 느낌이 있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억척스럽다는 건 비옥하지 않은 땅과 거친 파도에서 배움지 않게끔 살아왔다는 맥락이 있는 거죠. 제주도에는 8월에 금채기가 있어요. 산란기에 소라, 문어를 보호하려고 채취를 금지하는 거죠. 그 시기에 해녀 삼촌들이 바다를 지키시는데 관광객이나 дай버들과 마찰을 빚기도 해요. 삼촌들 목소리가 크고 제주도 억양이 세서 화내는 걸로 들릴 수 있어요. “바다가 해녀들 거예요?” 하시는데, 바다를 보호하려는 거니까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해녀들은 하루하루 바다가 죽어가는 걸 몸소 체험하잖아요. 기후위기가 삶의 위기죠. **일타**